

다문화주의적 관점에서  
『걸리버 여행기』의 재조명

조 진 호 (Jo, Jin-ho) \*  
(E-mail : sunrise6@hanmail.net)

논문접수일 : 2012년 12월 31일  
논문심사일 : 2013년 1월 25일  
게재확정일 : 2013년 2월 20일

\*학위취득대학 :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현재: 수원대학교 강사

다문화주의적 관점에서  
『걸리버 여행기』의 재조명

<국문요약>

2012년 한국 최초로 귀화자 출신 국회의원이 나왔다. 현재 한국에는 140만여명의 외국인이 장기 거주하며 앞으로도 그 유입은 지속될 것이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제노포비아’ 같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진다.

여기에 조나단 스유프트의 『걸리버 여행기』가 교훈이 될 수 있다. 걸리버는 미지의 세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견문을 넓히고 인격적으로 성장해나간다. 『걸리버 여행기』는 작가가 추구하는 이상 사회의 제안을 담고 있다. 스유프트가 『걸리버 여행기』를 썼던 18세기는 다니엘 디포가 『로빈슨 크루소』를 썼던 시기이다. 두 작품은 모두 새로운 세계를 향한 도전의 기록이면서도, 상반된다. 스유프트는 제국주의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영국 작가 다니엘 디포와, 아일랜드 작가 조나단 스유프트의 차이는,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로빈슨 크루소와, 이민족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배우고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걸리버로 달리 나타난다.

인간의 기본권은 인종, 민족, 피부색에 따라 다르지 않다. 인권 존중은 범 이전의 도덕적 의무이며 인류의 보편적 규범이다. 이때 필요한 자세는 차이를 ‘틀림’이 아닌 ‘다양성’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자세, 즉 ‘관용’이다. 『걸리버 여행기』는 ‘작은 분량의 이성을 부여받은’ 인간이 상식이 자리잡는 세상을 건설하려는 소망을 드러낸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이성과 상식에 기초하여 세계를 움직일 때 사회적 폐단이 치유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나 자신이 상대방의 위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나에게 중요한 가치도 다른 이에게는 쓸모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즉 상대성의 인식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지구촌 시대에 여러 민족들이 인류의 보편의 가치 위에 서로 충돌하는 문화와 가치 규범을 중재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인간에게 본래적으로 주어져 있는 이성과 상식이 가장 중요한 자산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 조나단 스위프트, 걸리버 여행기, 다문화, 상대성, 보편성, 인권, 이성, 상식

## I. 서론

2012년 4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귀화 한국인(필리핀 결혼 귀화자 이자스민)이 당당히 국회의원이 되었다. 비록 비례 대표이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일대 사건임에는 틀림없다.

현재 한국에는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140만여 명의 다문화인이 장기 거주하여, 남한 인구의 2.8%에 달한다(연합뉴스 2012.08.09). 외국 국적자는 111만여 명, 한국 국적자는 29만여 명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는 58만9천여 명, 결혼이민자는 14만4천여 명, 유학생은 8만7천여 명, 외국 국적 동포는 13만5천여 명이다.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 또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는 16만9천여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외국인 유입은 지속될 것이며,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점점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한국으로서는 우수한 외국 노동력 유입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에 대량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지만, 이미 100만 이상의 외국인들이 때로는 합법으로, 때로는 불법으로 한국 사회에 편입되어 살아가고 있다. 집단 추방이나 문화

폐쇄와 같은 강경 조치가 없는 한, 외국인 유입은 계속될 것이다.

외국인 숫자가 많아지면서 ‘제노포비아’(xenophobia)도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헤럴드경제 2012.04.16). 외국인들이 저임금을 내세워 중소기업, 농촌, 건설현장, 음식점 등에 취업하면서, 내국인의 일자리와 소득을 잠식한다는 불만과, 외국인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의심 때문이다. 실제로 외국인 범죄는 2004년-2011년 8년 동안 3배로 증가했고(노컷뉴스 2012.04.11), 이 가운데는 ‘오원춘 사건’과 같은 끔찍한 살인 사건도 있었다. 물론, 한국 전체의 범죄율은 3.58%(헤럴드경제 2012.04.17)인 반면, 외국인 범죄율은 1.78%(뉴시스 2012.05.17)에 불과하므로, 모든 외국인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을 대하는 한국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한국의 문화를 좁히거나 폐쇄할 것인가의 문제는 한국 국민들의 공감대에 따라, 그리고 위정자들의 의지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한국에 정착한 많은 외국인 또는 귀화자들을 갑자기 배척하는 것도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심각한 갈등 요인이 될 것이다.

외국 출신 귀화자들, 한국인과 결혼한 배우자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2세대, 이 숫자만 해도 50만 명에 근접하고 있어서, 인구 100명당 1명 이상의 다문화 인구가 존재하는 셈이다. 극단적인 조치가 없는 한, 이 수치는 앞으로도 더욱 높아질 뿐, 결코 낮아질 리는 없다.

그렇다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다문화인들이 한국에서 토착 한국인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서로의 문화적 차이와 갈등을 어떻게 융화시켜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선구적 작품으로서 조나단 스위프트(Jonathan Swift)의 『걸리버 여행기』(Gulliver's Travels)가 교훈이 될 수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 걸리버는 바다를 향한 모험을 통해 소인국, 대인국, 하늘을 날아다니는 섬, 말의 나라 등 미지의 세계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며,

견문을 넓히고 인격적으로도 성장해나간다. 걸리버는 남들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어보기도 하고, 열등한 존재가 되어보기도 하며, 그 경험들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태도를 습득한다. 이 여행기를 통해 스위프트가 묘사한 ‘다양한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이해와 적응과 존중’,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시되는 ‘모든 인간의 본성으로서 이성에 대한 신뢰’는 현대 다문화 사회에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II. 연구의 배경

### 1. 작품의 시대적 배경

『걸리버 여행기』는 기행문 형식을 이용하여 압담한 사회현실을 유쾌하게 풍자하고 상류 사회의 부패를 비판하고 이상 사회를 표현했다. 작품은 기이한 외국들을 묘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당시 현실의 축소판이자 작가가 추구하는 이상 사회의 제안이다(정영호 2003, 312).

아일랜드 작가 조나단 스위프트가 『걸리버 여행기』를 썼던 시기(1726년)는 영국 작가 다니엘 디포(Daniel Defoe)가 또 하나의 유명한 모험 소설 『로빈슨 크루소』를 썼던 시기(1719년)와 유사하다. 두 작품의 주인공 ‘걸리버’와 ‘로빈슨 크루소’는 대영제국을 건설했던 영국인들의 모험 정신을 반영한다. 두 작품이 쓰인 18세기는 영국의 해외 식민지 확대가 꾸준히 추진되었던 제국주의 시대이다. 두 작품은 새로운 세계를 향한 도전과 개척 정신, 새로운 세계의 경험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면서도, 또한 상반된다.

18세기 전반기의 영국은 권위적인 스튜어트 왕조가 온건한 하노버 왕조로 교체되던 시기였다. 17세기를 통치한 스튜어트 왕조(1603-1714)는 권리청원 제출(1628), 청교도 혁명과 공화정 시대(1642-1649), 왕정복고(1660), 명예혁명(1688), 권리장전 채택(1689) 등을 거치면서, 점

차 왕권이 약화되고 의회와 시민의 권리가 성장했다. 그 후 하노버 왕조에서는 시민 계급이 산업 혁명을 거치며 자본을 축적하고, 해외 시장이 활발하게 개척되어 세계 제일의 강대국을 건설했다. 영국 정부는 동인도 회사를 세워 인도에서 영향력을 확대했고, 북미 대륙에는 머지않아(1776년) 미국으로 독립할 식민지가 성립되었다.

해외 무역은 명예혁명 이후 영국이 근대 국가로 발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스페인 왕위계승전쟁(1701-1713)이 끝난 평화 시기에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고, 영국과 유럽, 그리고 신대륙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성립되면서, 그리고 무역에 투자하는 금융업이 발전하면서, 대양 무역은 영국이 제국으로 발전하는 동인이 된다(전인한 2004, 401-403).

바로 이 평화로운 무역의 시기에 『로빈슨 크루소』와 『걸리버 여행기』가 나왔다. 그러나 이 시기는 유럽 선진국 상인들에게만 좋았던 시기였을 뿐, 식민지 사람들에게는 약탈의 시기였다. 선진국은 지속적으로 식민지를 늘려가면서 무역 이익을 극대화시켰고, 식민지 획득 경쟁은 선진국 사이의 치열한 전쟁을 불러온다. 18세기의 식민지 경쟁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무려 200년 이상 지속된다.

18세기 당시 동양은 청의 강희제-옹정제, 조선의 영조-정조시대로,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에 천주교와 서양 문물을 전파하고 있었다. 청과 조선의 조정은 이를 금하였으나, 그 물결은 끊이지 않고 조금씩 퍼져나갔다. 이승훈이 세례를 받은 것이 1784년, 조선 최초의 천주교회를 세운 것이 1785년, 급기야 1791년에는 최초의 천주교 박해인 “신해박해”가 일어나니, 18세기 동안 상당히 많은 서양 문물이 전래되고 유교와 천주교가 접촉함으로써 완고한 유교 단일 문화 사회에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한 셈이다.

1700년대 초기 런던 채류 중이던 스위프트는 토리당의 ‘스크리블레루스 클럽’(Scriblerus Club) 회원이었다. 이 모임은 1714년 ‘마르티누스 스크리블레루스’(Martinus Scriblerus)라는 가상 인물을 내세워 당

대의 허위를 풍자하는 공동 작품을 만들기로 하고, 작품 일부분에서 그가 먼 나라를 여행하며 보고 들은 바를 쓰게 했는데, 이 부분을 스위프트가 담당했다. 그러나 앤 여왕의 사망과 더불어 토리 정부도 실각하여 이 모임은 중단되었다. 앤 여왕 사망 직후 스위프트는 런던을 떠나 아일랜드 더블린의 사제가 되어 은둔하다가, 1721년 자신이 여행기를 쓰고 있음을 친구에게 밝혔다(신현철 1993, 376). 스위프트가 『걸리버 여행기』를 쓰기 시작한 동기는 확실치 않으나, 1719년 다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가 인기를 얻은 것에 자극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송낙헌 1999, 371-372). 따라서 스위프트가 처음 작품을 구상한 것은 출판 10여년 이전의 일이었다(신현철 1993, 378).

1726년 발표된 『걸리버 여행기』는 영국이 유럽 이외의 다른 대륙에 관심을 갖게 되는 제국주의적 특성이 반영된 작품이다. 스위프트가 살았던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의 시기는 영국이 해양 국가로서 세계로 영역을 확대해나가면서 식민통치를 강화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일랜드 출신의 스위프트는 제국주의의 식민지 침탈에 대해 비판적이었다(이영관 2011, 155-158).

## 2. 조나단 스위프트의 정체성

『로빈슨 크루소』를 쓴 다니엘 디포가 순수한 영국인이었던 데 반해, 『걸리버 여행기』를 쓴 조나단 스위프트의 정체성에는 복잡한 배경이 있다. 그는 영국인이 아니라, 영국의 식민지로서 고통 받던 아일랜드인이었으며, 아일랜드의 자주권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원래 부계, 모계 모두 영국 혈통이었던 그는 아버지가 아일랜드 더블린에 이주하여 살던 1677년에 태어났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사망했고, 어머니는 어린 아들을 유모에게 맡기고 영국으로 돌아가 버려, 그는 사실상 고아가 되는 불우한 과거를 경험했다. 그는 삼촌의 도움으로 학교에 다녔고, 간신히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을 마칠 수 있었다(송낙헌 1999, 351).

대학 졸업 후 영국으로 건너가서 문인들과 정치적 모임을 가졌는데, 그 때 활동했던 스크리블레루스 클럽에서 공동으로 구상했던 내용들이 나중에 『걸리버 여행기』가 된다. 1714년 앤 여왕이 사망하고 토리당이 실각한 후, 당시 그의 정치적 후원자였던 윌리엄 템플 경의 사망으로 영국 정계에 진출하려는 야망이 좌절된다(강형 1999, 178). 영국에서 템플 경을 등에 업고 권력을 얻으려 했던 그는 아일랜드로 돌아와서 더블린 성 패트릭 성당의 수석 사제가 된 후에는 아일랜드의 애국자로 변모하여 자기 가문의 원래 배경인 영국보다는 태어난 고향인 아일랜드를 위해서 노력했다. 영국의 지배와 착취에 시달리는 아일랜드를 일깨우는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1726년 윌폴 총리에게 아일랜드 문제에 대한 항의서를 제출했고, 여러 글에서 적극적으로 영국을 비판한다.

대표적인 예가 『드레이피어의 편지』(*The Drapier's Letter*)로 저항운동을 촉발한 사건이다. 1724년 영국 정부는 저질 화폐를 아일랜드에 유통시키려 했다. 그는 ‘드레이피어’라는 가명으로 영국의 새 동전이 가난한 아일랜드를 더 가난하게 할 것으로 판단하고 아일랜드인들에게 이를 거부하고 영국에 대항하여 싸울 것을 선동했다. 영국 정부는 막대한 현상금을 걸고 작가를 수배했으나, 그를 밀고하는 아일랜드인은 아무도 없었다(신현철 1993, 372-373). 새 화폐의 유통은 저지되었고, 그는 아일랜드의 애국자로 추앙받게 되었다. 그가 『걸리버 여행기』를 완성한 것도 이 시기였다. 그는 계속해서 영국인 지주들의 착취를 비판하고 아일랜드의 빈곤을 고발하는 『온건한 제안』(*A Modest Proposal*)을 발표했다(송낙헌 1999, 354). 그는 지금도 아일랜드의 영웅으로 존경받고 있으며, 그의 묘비에는 ‘용감한 자유의 수호자’라고 새겨져 있다(신현철 1993, 373).

조나단 스위프트의 정체성에 관련된 당시의 정치적, 역사적 상황은 그의 처신에 매우 힘든 것이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지배자인 영국 출신의 다니엘 디포와, 피지배자인 아일랜드 출신의 조나단 스위프트 사이의 입장 차이는, 섬을 지배하고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

는 개척자 로빈슨 크루소와, 이민족들과 거듭 상호작용을 하면서 배우고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걸리버로,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 3.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

영국의 식민지 개척이 한창이던 18세기 초,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는 다니엘 디포에 의해 쓰인 『로빈슨 크루소』와 비슷한 시대, 비슷한 소재의 모험 소설이면서도, 정반대의 세계관을 담고 있다. 스위프트가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에 비판적이었던 것과는 반대로, 다니엘 디포는 인간이 기술로 자연을 정복하는 것, 새로운 땅을 식민지로 개척하는 것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이수연 2010, 211). 무인도에서 홀로 살아남은 로빈슨 크루소의 성공담은 위대한 서구 ‘문명인’의 삶을 보여주는 표본이다. 28년간 무인도에서 살았지만 과학적 합리성으로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고, 철저하게 이성적인 자기 통제로 절망에 빠지거나 정신적 공황에 빠지지 않고, 자기 인격을 유지하는데 성공하기 때문이다.

『로빈슨 크루소』는 청교도 노동윤리를 토대로 이성에 기초하여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나아가 용감하게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하는 제국주의의 전형을 보여준다(이수연 2010, 226). 그는 중상주의를 신봉하는 신중 부르주아(최정운 1999)이며, 당시 시대가 요구하는 근대적 인간답게 합리적으로 자신의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정신과 넓은 영토를 소유하고자 하는 제국주의 개척 정신의 모범인 것이다(이수연 2010, 217). 무인도를 자기 왕국으로 만든 로빈슨 크루소는, ‘야만인’ 프라이데이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기독교로 개종시켜, 자신의 충실한 하인으로 만든다. 그들의 관계는 불평등한 지배-피지배 관계이다.

로빈슨과 프라이데이 사이의 불평등 관계, 즉 선진국의 후진국에 대한 멸시는 제국주의 식민 정책의 연장이다. 강자는 우월하고 약자는 가치 없으며,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시된다. 선진국이

후진국을 지배하는 것은 후진국을 선진화하기 위한 교육 혜택으로 미화된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아 지배한 과거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로빈슨이 프라이데이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서양의 예의범절을 가르쳐 자기 하인으로 삼는 데 반하여, 걸리버는 가는 곳마다 그 나라의 언어와 풍습을 새롭게 배우는 겸허한 모습을 보여준다.

영국계 아일랜드인(Anglo-Irish)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가진 스위프트는 1714년 토리 정권의 실각으로 그의 지위가 지배자 영국인에서 피지배자 아일랜드인으로 바뀌면서, 식민지의 상황에 대한 이해에 눈을 뜨게 된다. 『걸리버 여행기』를 통해 지적되는 영국-아일랜드 간의 불평등 관계의 배후에는 영국의 식민지 착취가 있다. 18세기 아일랜드는 ‘가축법’(Cattle Acts, 1663, 1671)과 ‘양모법’(Woolen Acts, 1699)에 의해 영국 이외의 나라로 수출이 막히고, 산업을 발전시킬 기회를 봉쇄당한다. 3부 “날아다니는 섬”에서 라퓨타(Laputa)의 통치 때문에 황폐해진 발니바르니(Balnibarbi)가 영국의 무역정책으로 인해 황폐해진 아일랜드를 암시하고 있다. 4부 “말의 나라 여행”에서 표현되는 제국주의 비판은 훨씬 강경하다. 스위프트는 여기서 유럽 국가들의 경쟁적인 팽창주의에 대해서 “해적의 무리가 육지를 발견하면 약탈하러 상륙한다... 그 경건한 원정에 고용된 저주스런 도살자 무리들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야만적인 사람들을 개종시키고 문명화하도록 보내진 현대의 식민단원들”이라고 비판하고 있다(Manis ed. 2008, 234-235).

걸리버가 소인국 블레푸스큐 함대를 포획해왔을 때 릴리풋 국왕은 블레푸스큐에 총독을 파견해 통치하거나, 자신에 반대해 블레푸스큐로 망명한 세력(계란의 큰 쪽을 깨는 사람들)을 죽이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계란을 좁은 쪽으로만 깨도록 강요함으로써 자신이 전세계의 유일한 군주가 되겠다는 욕망을 드러낸다(Manis ed. 2008, 37). 이와 같은 릴리풋 국왕의 욕심은 제국주의의 팽창을 상징한다. 그러나 걸리버는 적국 블레푸스큐에 대해서도 정의의 관점에서 정책을 펼 것

을 요구하는데, 이것이 바로 영국의 식민 정책에 대한 스위프트의 비판이다.

작가는 ‘날아다니는 섬’ 라퓨타와 그것의 지배를 받는 발니바르비 사이의 관계를 통해 영국의 아일랜드 약탈을 비판했다. 라퓨타 국왕은 어느 도시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세금을 거부할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한다. 온건한 방법은 그 도시 위에 섬을 떠 있게 만들어서 햇빛과 비를 차단한다. 더 심한 방법으로는 커다란 돌을 소나기처럼 퍼부어 집을 박살낸다. 여전히 버티면 섬을 머리 위로 곧장 떨어지게 만들어 사람과 집을 한꺼번에 없애버린다. 이에 발니바르비 사람들은 복종할 수밖에 없다(Manis ed. 2008, 132). 여기서 라퓨타-발니바르비 관계는 영국이 아일랜드를 복종시키기 위해 무역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한 것을 풍자한다(정영호 2003, 320). 발니바르비의 수도 라가도의 집들은 수리를 못하고 행인들은 누더기를 입고 다닌다. 노동자는 굶주리고 농촌은 극도로 황폐된다. 아일랜드의 경제 침체는 영국인 지주들이 아일랜드 토지를 소유하고, 상인들이 영국 제품을 강매하기 때문인데, 아일랜드 토지의 생산물과 상품 판매의 이익마저 모두 영국에서 소비되므로 아일랜드의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이와 같은 본국과 식민지 사이의 불공정 무역은 제국주의의 전형적인 약탈 유형이다.

### Ⅲ. 다양한 차원의 상대성 인식

『걸리버 여행기』에서 가장 가치있는 요소는 책을 구성하는 4개의 부분, 즉 네 가지 서로 다른 시점에서 인간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타인보다 우월한 입장(소인국), 타인보다 열등한 입장(대인국), 광기어린 사람들을 바라보는 입장(날아다니는 섬), 이성과 미덕을 갖춘 입장(말의 나라) 등이 그것이다(Turner ed. 1994, xxi).

### 1. 대인과 소인의 상대적 위치

『걸리버 여행기』의 1부 “릴리풋으로의 여행”에서 걸리버는 풍자의 주체로서 소인국 릴리풋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비판하는 데 반해, 2부 “브롭딩넵으로의 여행”에서는 대인국 브롭딩넵 국왕 앞에서 영국 문명의 위대함을 자랑하려다가, 오히려 그것의 저급함을 비판당하며, 그래서 자연에 존재하는 해충들 중에서 가장 사악한 것에 비유당하면서 이번에는 풍자의 객체가 된다(전인한 2003, 452).

대인국에 간 걸리버는 자신이 거인들에게 한입거리도 되지 못함을 깨닫고, 예전에 릴리풋 사람들이 자신을 거인으로 우러러볼 때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위치에 따른 상대성을 인식한다. 걸리버는 대인국에서 갖가지 위기 상황을 겪으며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 것 없는가를 깨닫는데, 이로 인해서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현실을 직시하는 계기를 경험하게 되며, 1부 소인국과 2부 대인국의 대조를 통해 세계의 상대성을 인식한다(Manis ed. 2008, 63). 그 예로, 걸리버에게 소인국 사람들의 피부는 희고 깨끗해보였으나, 소인국 사람들은 걸리버의 피부를 어둡고 거칠다고 인식했다. 대인국에서 걸리버는 거인들의 피부에서 털과 모공을 땀눈으로도 관찰하게 됨으로써, 소인국 사람들이 왜 자신의 피부를 거칠다고 인식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다(Manis ed. 2008, 67).

걸리버는 소인국 사람들의 12배 크기이다. 그만큼 힘도 세어서 ‘릴리풋’과 ‘블레푸스큐’ 사이의 해전에서 수십 척의 블레푸스큐 전함을 나포하는 큰 승리를 거두어, 국왕 다음 가는 높은 벼슬을 받는다. 신대륙 원주민들과 조우한 유럽 백인들의 시각이 바로 소인국에 간 걸리버와 유사했을 것이다. 앞선 기계 문명 덕분에 총을 가지고 있었고, 그 힘을 바탕으로 소수의 군대만으로 고유 문명을 정복하여 원주민들을 노예로 부리고, 그들의 땅에 상품 작물을 심었다.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지는 국제 무역(선진국이 자본을 투자하고, 후진국의 땅과 노동력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수출하는 플랜테이션 방식)이 그때부터

형성되었다. 19세기 조선에 도착한 서양 선교사들의 눈에 또는 일찍 서양 문명을 받아들인 일본인들의 눈에 비친 조선인들도 비슷했을 것이다. 걸리버가 마음만 있었다면 충분히 스스로 소인국의 왕이 되어 나라를 지배할 수 있었듯이, 실제로 일본인들은 무기력한 조선을 지배했다.

소인국에서 돌아온 걸리버는 다음에는 거인들에게 발견되어 장난감으로 취급받는다. 다행히 왕실의 눈에 들어 대인국 왕과도 대면하게 되지만, 그는 언제나 버림받을 수 있는 한낱 애완동물일 뿐이다. 불과 몇 년 전에 절대 강자로서 소인들을 지배했던 거인이, 이제는 정반대로 거인들에게 깔려죽지 않도록 몸을 사려야 하는 소인이 된다. 걸리버에게 ‘릴리пут’이 있었다면, 릴리пут 사람들도 자기들보다 더 작은 인류를 발견할 수 있으며, 걸리버 또한 누군가의 ‘릴리пут’이 될 수 있다(Manis ed. 2008, 63).

소인국에 간 걸리버는 교양 있고 현명해 보인다. 그는 자기를 해치려는 소인들에게 관대했으며, 적 함대를 전멸시키고 적국을 완전히 지배하려는 릴리пут 국왕에게 협력을 거부하고 그것이 정의에 어긋난다고 설득한다(Manis ed 2008, 19). 걸리버에게 소인들은 처음에는 귀엽게 보였지만, 점차 그들의 정치를 통해 인간다운 비열함이 드러난다. 걸리버의 12분의 1 크기에 불과한 릴리пут 국왕이 “전 우주의 기쁨이며 두려움을 주는 가장 강력한 황제”(most mighty Emperor of Lilliput, delight and terror of the universe)로 칭송된다(Manis ed. 2008, 29). 그러나 릴리пут 국왕의 위엄은 그보다 12배가 큰 걸리버에게는 가소롭기만 하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된 교만함이다.

반대로, 대인국에서는 걸리버 자신의 비도덕적인 결점이 드러난다. 대인국 국왕에게 화약제조법을 가르쳐주겠다고 자랑하며 그것으로 도시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학살할 수 있고 나아가 절대 군주가 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인간의 잔인성을 드러낸다. 국왕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왕국의 절반을 잃어버리는 편이 낫다며 그의 제안을 거절하자,

그는 국왕이 과학으로서의 정치에 무지하다고 비난한다(Manis ed. 2008, 103-104). 걸리버는 대인국 국왕 앞에서 자랑스럽게 선진 문명국으로서의 영국, 그리고 지난 100년간의 영국 역사를 소개했으나, 국왕은 걸리버의 이야기로부터 영국의 현실과 역사가 선진 문명국이라고 하기에는 추잡하고 부도덕한 것들도 가득 차 있음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한 변호사는 악한 사람을 옹호해주는 부도덕한 직업이며, 국가를 방어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상비군은 백성들을 억압하는 제도적 장치이고, 영국 역대 국왕들과 왕조의 교체 과정은 음모, 반역, 살인, 학살, 혁명, 추방 등의 덩어리일 뿐이었다. 급기야 영국인들을 “자연이 이제까지 지구상에 기어 다니도록 허락한 가장 추악한 해충”(the most pernicious race of little odious vermin that nature ever suffered to crawl upon the surface of the earth)으로 단정한다(Manis ed. 2008, 101).

대인국 국왕이 걸리버에게는 가장 완전한 이상향이었던 고귀한 조국 영국을 심하게 경멸하자 걸리버는 분개한다(Manis ed. 2008, 80). 그러나, 걸리버에게는 완벽한 이상향이었던 영국이 대인국 국왕에게는 초라한 미물들의 소굴, 추잡한 악행들의 집합체일 수도 있다. 이처럼 동일한 사안을 놓고도 관점에 따라 정반대의 해석이 나타나는 일은 현실에서 얼마든지 있다.

걸리버가 영국에는 정부의 통치술에 관한 책이 수천 권이라고 자랑하자 국왕은 통치는 상식과 이성, 정의와 자비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고려할 가치가 없으며 “하나의 이삭, 하나의 풀잎만이 자라던 땅에 두 개의 이삭, 두 개의 풀잎이 자라게 하는 사람이 모든 정치꾼들을 합한 것보다 인류에게 더 소중하다”고 말한다(Manis ed. 2008, 105). 이상과 같이, 소인국에서 걸리버는 적국을 정복하고 계란 깨는 방식을 강요하려는 릴리пут 국왕에게 정의와 상식의 중요성을 역설했는데, 이와 반대로 대인국에서는 걸리버가 브룸딩넉 국왕으로부터 정치에 필요한 정의와 상식에 관한 충고를 듣는 입장으로 바뀐다.

대인국에서는 이처럼 교만하던 걸리버가 우정과 미덕의 이상적 공

동체인 ‘말의 나라’를 경험한 후에서 광적인 수준의 인간 혐오자가 되어 집에 돌아온다. 자신이 악덕과 타락에 빠진 인간 종족, 즉 ‘야후’(yahoo)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며, 사람 냄새조차 혐오하여 다른 사람들은 물론 아내조차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하루 네 시간씩 마구간에서 말의 냄새를 맡고 말과 대화하기를 즐긴다(Manis ed. 2008, 225; 229-230).

## 2. 정신적 가치의 상대성

3부 “날아다니는 섬”은 현실을 무시하는 추상, 이론을 위한 이론을 풍자한다. 19세기 조선의 보수 양반들은 유교의 공리공론에 빠져서 실용적인 서양 문물을 거부하다가 시대에 뒤쳐졌지만, 18세기 『걸리버 여행기』에서는 너무나 최신만을 추구하는 지식인들이 공리공론에 빠져 과거의 실용적인 것들을 무시한다. 라퓨타 사람들은 헛된 명상에 잠길 때가 많아 쉽게 현실을 망각한다. 이들은 태양이 지구에 접근하거나 혜성과 부딪히지 않을까하는 불안에 빠져 있어서 生中死의 상태나 다름없다(Manis ed. 2008, 126). 그래서 ‘치기꾼’(flapper, *climenole*)이 얼굴을 쳐주어야 현실로 돌아온다. 스유프트는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소수의 권력만을 추구하는 의회, 무용 무익한 연구와 공리공론에 빠져 있던 학자들과 같은 영국 정치계와 과학계를 풍자한다.

발니바르비의 수도 라가도의 연구소에서 교수들은 허황된 연구에 몰두한다. 집을 지붕부터 짓고 아래로 지어내려가는 기술, 오이 속에서 태양광선을 뽑아내는 기술, 건강한 허파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단어를 한 음절로 줄이는 언어 등 허황된 프로젝트들 가운데 하나도 완성되지 못한 채, 땅이 황폐되고 집이 무너지며 백성들은 옷이나 먹을 것이 없게 되었는데도 교수들은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품고 과거보다 더 지독한 광기로 더욱 연구에 몰두했다. 작가는 당시 영국 ‘왕립협회’(Royal Society)의 학자와 연구 활동을 풍자하고 있는데 런던의 왕립협회에서는 실제로 이와 비슷한 실험들이 행해졌다고 한다(Turner

ed. 1994, xx).

그러나 어느 것이 실용적이고 어느 것이 공리공론인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상대적이고 가변적이다. 문명과 야만의 구분도 또한 그러하다. 한국도 서로 다른 인종과 민족 사이의 학교와 직장에서의 차별, 서로 다른 종교와 가치관과 생활 습관의 충돌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소를 먹지 않는 식습관과 돼지를 먹지 않는 식습관 사이의 갈등은 차라리 사소한 편이며 그보다 중대한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일하는 무슬림 노동자들은 하루 다섯 번 메카를 향해 기도한다. 그 동안 공장 작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어서, 그들을 고용하는 한국인 사장은 속이 탄다. 기도를 한두 번 줄이거나, 퇴근 후에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근무 중에 작업을 중단해야 하니, 회사의 손해가 막심한 것이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쌀이나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한국인 사장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한국인 사장에게는 무용무익하다고 판단되는 하루 다섯 번의 기도는 그들에게는 매우 소중하다. 매일 다섯 번 기도하고, 종교 교리를 공부하느라 시간을 소비하는 것, 만약 기도를 못하게 하면 슬피하거나 분노하는 반응은 그들의 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인 사장의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지만, 종교 규범을 삶의 준거로 삼고 있는 무슬림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기도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한국인 사장이 오히려 폭력적이고 야만적으로 보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조선을 방문한 서양 신부들에게도 조선인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 풍성한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하는 모습이나, 실생활에 유익한 농업 기술이나 과학 지식을 공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심성론(心性論)이니 이기론(理氣論)이니 하는 ‘공리공론’으로 가득찬 유교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의아했을 것이다.

소인국에서 달걀을 먹을 때 큰 쪽을 깰 것이냐(Big-endian), 작은 쪽을 깰 것이냐(Little-endian)의 사소한 문제로 당파가 갈리고, 결국 ‘릴리풋’과 ‘블레푸스큐’의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인다. 이것은 본래 구교

와 신교, 국교회와 非국교회 사이의 같은 종교 분쟁을 풍자한다(송낙현 1999, 362-363). 달걀깨는 방향 논쟁은 걸리버에게는 무의미하게 보이지만, 과연 그것이 소인국 사람들에게도 사소한 문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조선 후기 당쟁의 소재였던 예송(禮訟) 논쟁이 ‘합리적인’ 서양인들에게는 무의미하지만, 조선의 선비들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였듯이.

이와 비슷한 사례로, 한국의 근대화 초기에 빚어진 정신적 가치 충돌은 이사벨라 비숍(Isabella Bishop)의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에 잘 묘사되어 있다. 이 책에서 비숍은 1895년 ‘단발령’ 전후의 조선 사정을 기록했는데, 경제적-물질적 가치보다 유교 사회의 정신적 가치를 우위에 두고 생명을 건 투쟁을 벌이는 조선 사람들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그 해 12월 30일, 상투를 자르게 한 ‘단발령’은 조선을 들끓게 했다. 조선인들은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왕(고종)을 구급한 일본의 힘이 두발까지 지배하는 것을 참지 못했다. 조선인들에게 상투는 5천년 역사와 전통, 고결함을 의미하며, 조상 숭배와 연결된다. 당장 먹을 것이 없더라도 상투에 필요한 땅건과 갖은 있어야 했으며, 상투가 없는 사람은 ‘반편’(half man)으로 취급되었다.

단발령은 조선인을 일본식 관습에 맞추려는 것으로 생각되었고, 일본이 조선인의 정체성을 빼앗으려는 시도라는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반발 폭동과 일본인에 대한 폭력이 빈발했고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사업상 서울에 올라왔다가 머리를 깎인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서울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자 생필품 가격이 급등했다. 어떤 아버지는 두 아들이 머리를 깎자 치욕을 느껴 자살했고, 춘천에서는 주민들이 단발령을 집행하려는 수령을 죽이는 등 사태가 악화되었다. 1896년 2월 2일, 고종과 세자는 궁을 떠나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고(아관파천), 단발령 취소를 선포했다. 비숍은 이 일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평가했다. “상투는 승리했다.”(Bishop 1994, 414-422)

단발령을 둘러싼 유교적 가치와 서구적 가치 사이의 충돌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계란깨는 방향에 대한 충돌(사실

은 국교회와 非국교회 사이의 신앙 충돌)이 실제로는 매우 심각한 정신적 가치 충돌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다문화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종교와 도덕을 가진 민족 사이에 이와 같은, 우리가 보기에는 우습지만 그들 자신에게는 매우 심각한, 정신적 가치 충돌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다. 그 때 상대방의 정신적 가치를 우리 자신에게 맞추도록 강요할 것인가, 아니면 각자 서로의 것을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선택의 순간이 도래할 것이다.

### 3. 문명과 야만의 상대성

대민국에서 거인들과 큰 목소리로 대화하고, 큰 사물을 보는 데에만 익숙해져 있던 걸리버는 영국으로 돌아와서는 보통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사고방식에 다시 적응하는 데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는다(Manis ed. 2008, 115-116). 이것은 사람에게 한번 익숙해진 습관과 편견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잘 보여준다.

19세기 말에 조선을 방문한 이사벨라 비숍의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나, 윌리엄 그리피스(William Griffiths)의 『은자의 나라 한국』에서는 조선의 생활상을 기록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치중한 나머지, 조선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는 소홀하였다. 예를 들어, “조선인들은 먹는 것을 일생의 목표로 삼아, 먹을 기회만 있으면 무조건 많이 먹으려고만 한다”거나 “어머니가 아이의 배를 손가락으로 두드려 배가 팽차야만 밥 먹이는 것을 중단한다”는 기술이 두 책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데,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했던 조선 말기의 경제 사정이나 식량 사정, 기회 있을 때 많이 먹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었던 노동 조건 등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다.

『걸리버 여행기』의 소인국에서 출세 방법은 줄타기를 잘하거나 막대기의 위아래를 재주 있게 뛰어넘는 기술이다. 스위프트의 원래 의도는 당시 영국에서, 나아가 모든 사회에서 출세의 기준이 인격이나 실력이 아님을 풍자하는 데 있다. 그러나 약간만 관점을 바꾸어본다

면, 모든 사회는 서로 다른 신분 상승 장치를 두고 있다.

어떤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공을 세운 전사가, 다른 사회에서는 학문적 지식이 높은 자가, 또 다른 사회에서는 장사로 돈을 많이 모은 자가 그 사회의 높은 지위에 오른다. 고조선의 ‘단군’이나 인도의 ‘브라마’ 계급처럼 신 또는 종교와 관련된 일을 하는 자가 그 사회의 최고 계급이 되기도 한다. 이런 차이들을 생각한다면 어떤 역사적 계기에 의해서 줄타기를 잘하는 자가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사제의 존귀함이나 전사의 용감성이 중요 가치가 되는 사회에서 ‘돈밖에 모르는 천박한 장사치’가 권력을 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보이듯이,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능력이 존중되는 사회에서는 ‘요설과 미신으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무당’이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잘못된 일이다. ‘말타기’나 ‘활쏘기’를 잘하는 사람이 귀하게 대접받는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릴리콧의 특수한 역사에 근거하여 ‘줄타기’를 잘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것도 별로 이상한 일은 아니다.

우리는 흔히 세계를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으로 나누고, 우리 자신은 ‘문명’에 위치시키며, 우리의 자의적인 구분에 의해 ‘야만’으로 위치시킨 사람들이나 그들의 공동체를 비하한다. 이른바 ‘문명’에 속한 ‘야후’(yahoo,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천박한 동물)들은 ‘야만’에 속한 야후들에 대해 매우 큰 교만에 빠져든다. 그러나 휘늬(houyhnhnm, 말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인격적으로 우월한 동물)들이 보기에는 한참 보잘것없는 야후들 사이에서 자기들끼리 문명과 야만을 구분하고, 한쪽이 다른 쪽을 무시하거나 천대하는 행위, 심지어 상대방을 강제로 계몽시키려 하거나 노예로 삼거나 아예 말살시키려고 하는 행위는 어처구니없다. 문명과 야만의 구분은 매우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것이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야만’에 속하고, 다른 이들의 공동체가 ‘문명’에 속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비숍은 서울에 도착하여 그 첫인상을 ‘불가사의한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면서도 ‘동양적인 특징’, 즉 거리의 쓰레기와 오물이 아름다움을

반감시킨다고 평한다(Bishop 1994, 47). 그런데 여행을 안내할 영어 통역을 구하는 과정에서 비숍은 짐을 줄이기 위해 당시 대부분의 서양인들처럼 옷을 두 벌만 가지고 떠날 작정이었으나, 통역을 맡은 조선인 청년은 자신은 최소한 아홉 벌의 옷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외국인들은 워낙 습관이 더러우니까요”라고 말한다(Bishop 1994, 66). 쓰레기가 굴러다니는 거리에 살면서도 아홉 벌의 옷을 가지고 여행하는 조선인과, 두 벌의 옷만으로 긴 여행을 떠날 생각을 하는 영국인 사이에 누가 더 불결한 것인가.

한국인들은 흔히 중국인들을 ‘짱개들’, 일본인들을 ‘쪽발이들’이라고 멸시하는데, 중국인들이나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더 나아가, 서양 백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모두 ‘하등한 유색 인종들’로 비하될 수 있다. 지금도 여전히 현실 곳곳에서 나타나는 인종 갈등, 민족 갈등이다. 우리는 여기서 교만이라는 악덕과, 관용이라는 미덕의 가치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인종이나 민족만을 근거로 개인을 판단하는 것은 늘 심각한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 사례로, 걸리버는 같은 기독교도이면서도 잔인하고 욕심 많은 네덜란드 해적 선장과, 이교도이면서도 걸리버에게 관대한 일본인 선장을 만난다(Manis ed 2008, 118-119). 또한 세상에는 걸리버의 배를 빼앗고 외딴 섬에 그를 내버리는 악독한 해적들도 있지만, 반면에 그를 구조하고 아무 대가 없이 그의 귀국을 도와주는 페드로 데 멘데즈 선장 같은 사람도 있다. 이는 인종이나 민족에 상관 없이 인간 자체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착한 사마리아인’(good Samaritan)이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의 사례이기도 하다 (Turner ed. 1994, xxvi).

비숍은 러시아 연해주에 한국인 마을을 보고, 조선에서 보았던 한국인들과의 차이에 큰 충격을 받는다. 조선의 한국인들은 나태하고, 불결하며, 양반과 관료의 착취에 시달리는 소극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연해주의 한국인들은 정반대였다. “한국에 있을 때 나는 한국인들을 세계에서 제일 열등한 민족이 아닌가 의심한 적이 있고 그들의

상황을 가망 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곳(연해주)에서 한국인들은 번창하는 부농이 되었고 근면하고 훌륭한 행실을 하고 있고 우수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변해갔다... 한국에 남아 있는 민중들이 정직한 정부 밑에서 그들의 생계를 보호받을 수만 있다면 천천히 진정한 의미의 시민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Bishop 1994, 277) 인간은 자신의 노력에 따라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존재이지, 인종이나 민족에 따라 문명이나 야만이나로 이미 결정된 존재는 아닌 것이다.

## IV. 상대성 조건 하의 보편성 추구

### 1. 인류의 보편적 가치 인식

추구하는 정신적 가치가 서로 다를 수 있고, 문명과 야만이 상대적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법률 아래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현실 국가에서 단순히 관념적으로 ‘너의 문화도 옳고, 나의 문화도 옳다’는 순진한 문화 상대주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일부다처제가 금지된 한국에서 일부다처제가 허용된 국가 출신자의 가족 관리는 큰 문제이다.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본국의 가족을 데려오려고 할 경우 2번째 이하의 부인들과 자녀들은 한국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미 결혼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다시 한국 여성과 결혼하더라도, 한국법상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다(한겨레 2011.05.16). 한국에서는 근친혼을 꺼리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근친혼을 당연한 풍습으로 여긴다. 이런 문제들은 구체적으로 제도적 입법 절차의 보완이 있어야만 비로소 해결이 가능하다. 이때 입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과연 어느 것이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에 적합한가이다.

문화 상대주의 논쟁은 이미 2천여 년 전 헤로도토스의 『역사』에서 나타난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은 여행 도중에 다양한 민족의

장례 풍습들을 관찰하였다. 칼라시아 인들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먹는 관습이 있었고, 그레시아 인들은 시신을 화장하는 관습이 있었다. 왕은 그레시아 인들에게 죽은 사람의 시신을 먹을 수 있는냐고 물었으나, 그레시아 인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주더라도 그럴 수는 없다고 답하였다. 왕은 이번에는 칼라시아 인들에게 죽은 사람의 시신을 화장하는 조건으로 상금을 받겠느냐고 물었더니, 그들은 제발 그런 무서운 말을 하지 말라고 애원하였다.

에스키모 인들은 20세기 초까지 부인을 손님이나 친구와 동침시키는 풍습이 있었고, 아이가 많이 태어나면 그들 중 일부를, 특히 딸을 살해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다(Rachels 1989, 31-33). 공동체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다르고, 관습과 규범이 다르다는, 이와 같은 현상들을 보면, 이 세상에는 객관적 진리는 없고, 철저한 문화 상대주의만이 진리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형상의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회의 도덕 규범들은 하나의 똑같은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 그것은 “모든 사회에는 존속하기 위해 도덕적 규칙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소유해야 할 도덕적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이다(Rachels 1989, 47).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인종과 민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식과 이성으로 인간 공통의 기준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민족이 다르면 사소한 생활습관은 물론, 인권이나 범죄와 같은 중대한 문제에 대한 의식도 다르다. 일부 국가들은 오랜 관습에 따라 여성을 차별한다. 한국에도 남녀 차별이 존재하지만, 100년 전과 비교하면 많이 향상되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불과 100여 년 전 조선 시대에도 여자들은 오늘날 중동권의 무슬림들이 히잡, 차도르 등을 쓰듯이, 얼굴을 가리고서야 외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외국인들은 부인이나 자식을 때리거나 학대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한국인들도 미국 이민 초창기에 아이들을 체벌하거나 부부가 맞벌이를 하기 위해 아이

들만 집에 방치한 것이 아동 학대 죄로 형사 고발되어 곤욕을 치른 사례가 많았음을 전해 듣고 있다.

외국 군인에게 강간당함으로써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인 여성이 ‘명예살인’ 당하는 사건이 중동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 관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진국으로 이주한 중동계 이민자들에게도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딸이 지나치게 서구 문명에 물들었다는 이유로 살해한 이라크 출신 미국인 아버지, 역시 같은 이유로 딸을 살해한 파키스탄 출신 영국인 아버지, 아프가니스탄 출신 캐나다인 아버지 등이 그 예이다(경향신문 2011.01.03; 한겨레 2012.08.05; 서울신문 2012.01.31). 이것은 국제 사회가 추구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 즉 인간의 생명과 인권, 남녀평등 등의 원칙에 반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이런 행위나 관습들마저 소박한 문화 상대주의라는 명분으로 용인되기는 어려우며, 법률적이고 제도적인 조치로서 규제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 2. 이성과 상식의 요청

소인국 릴리פות에는 높은 굽의 신을 신는 트라맥산 파와 낮은 굽의 신을 신는 슬라맥산 파 사이의 당쟁이 있었다. 또한 릴리פות-블레푸스큐 전쟁의 시초는 계란을 깨는 방법 때문이었다. 계란을 넓은 쪽으로 깨는 세력(Big-endian)이 좁은 쪽으로 깨는 세력(Little-dendian)에 의해 축출당하자, 블레푸스큐로 망명하여 리틀 엔디언에 속하는 릴리פות 국왕에게 전쟁을 도발한 것이다. 스위프트는 “진실한 신앙을 가진 자는 편리한 쪽으로 계란을 깨뜨린다”(all true believers break their eggs at the convenient end)며 논쟁의 무의미함을 경고한다(Manis ed. 2008, 34). 이때 어느 쪽이 편리한 쪽인가는 각자의 양심에 맡긴다. 즉, 상식에 따르면 되는 것이다.

걸리버는 2부에서는 대인국 국왕 앞에서 영국을 자랑스러운 선진국으로 묘사하려고 노력했다가 실패한다. 반면에 4부 “말의 나라 여

행”의 5장과 6장에서 걸리버는 영국인들의 사악함을 깨닫고 휘눔 주인에게 군주들의 전쟁욕, 변호사와 법원의 부정, 정치인들의 타락 등을 설명하며 영국을 매우 추악한 야만국으로 묘사하고, 휘눔을 찬양한다. 그는 점차 말처럼 걷고 말하는 소리도 말의 울음소리를 닮아가면서, 평생 휘눔들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

스위프트는 4부 “말의 나라 여행”에서 총명한 말을 이상적인 인류의 모습으로 묘사하는 반면, 야후로 하여금 인간의 흉측한 모습을 드러낸다. 여기에는 인간이 말(짐승)보다 못함을 개탄하면서 도덕과 이성애 기초한 인간 본성의 회복을 요구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있다(강형 1999, 202). 걸리버는 말들의 모든 행동과 태도가 대단히 예의바르고 이성적이며 또한 대단히 정확하고 지혜로웠다고 표현하고, 부패한 인간과는 정반대인 휘눔들의 미덕이 자기 눈을 뜨게 해준 결과, 인간의 명예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음을 고백하며, 휘눔은 미덕을 갖춘 인간의 이상형임을 드러낸다(Manis ed. 2008, 203; 204; 221).

휘눔들에게 권력, 정부, 전쟁, 법률, 처벌 등의 단어나 절도, 강도, 사기 등 사악한 개념의 단어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거짓’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서 “그렇지 않은 것”(the thing which was not)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Manis ed. 2008, 183; 187; 198; 236). 말의 나라에서 목격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인간의 모습이자 상식과 이성의 기초 위에 세워진 스위프트의 이상형이다. 말들이 사는 집안은 정결하게 정리되어 있고, 말들의 행동은 신중하고 예의바르며, 과식하거나 성욕에 휩쓸리지도 않고, 말들의 교육은 친자식과 남의 자식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다.

말의 나라에서 걸리버를 보호했던 주인(휘눔)은 걸리버에게 법이 개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을 개탄하며 이성에 호소하길 바란다. 그 주인은 만약 우리가 이성적인 동물이라면, 자연과 지성은 이미 우리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는 충분한 안내자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주인은 걸리버와 같은 야후(인간)를 “아주 작은 분량의 이성”(some small pittance of reason)

을 부여받은 동물로 평가하는데, 야후들은 그 이성을 땅 속에서 보석을 캐내거나 욕정을 채우는 등 자신들의 타락을 추구하는 데에만 사용한다(Manis ed. 2008, 204). 따라서 걸리버는 휘נם들이 유럽에 파견되어 야후들에게 이성과 여러 가지 미덕들을 가르쳐주기를 바란다(Manis ed. 2008, 234).

인간이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정상적인 것, 우월한 것으로 여기고, 타인들의 것을 멸시하는 악덕의 태도를 ‘교만’(pride)이라고 부를 수 있다. 스위프트는 걸리버 여행기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인간(야후)의 교만 또는 자만심에 대하여 길게 언급하고 있다. 이성적으로 완벽한 존재인 휘נם들은 결코 자만심을 갖지 않는다. 반면에, 휘נם에 비해서 훨씬 열등한 존재인 야후들은 약간의 근거만 있어도 쓸데없는 자만심에 빠지며 다른 야후들을 무시하고 경멸한다. 그리하여 걸리버는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문장에서 그런 부조리한 악덕을 가진 야후들은 제발 자기 시야에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한다(Manis ed. 2008, 236).

스위프트의 다양한 풍자들이 진실로 의도하는 바는 건전한 이성과 상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정치의 구축이다. 때로는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한 선진국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자신이 남들보다 뒤떨어진 후진국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 자기에게 익숙한 가치 판단 기준에 따르면 어떤 국가나 민족은 ‘정신 나간’ ‘쓸데없는’ 가치들과 사업들에 몰두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과 사업들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이 때, 자신과 타인들이 공통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인간 본성으로서의 이성이다. 인류에게 보편적인 이성에 의해서, 그리고 그 이성에 따른 공통의 상식에 의해서 서로의 가치 차이들을 이해하고 조정해나갈 때 인간들의 사회는 건강한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인종, 민족, 종교, 사회 경제적 수준, 교육과 지식수준 등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을 완화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 각국에서 몰려드는 이민자들을 위해 처음에는 ‘용광로’(melting pot) 모델, 즉 다 녹여서 하나로 만드는 ‘동화’(assimilation)를 시도했다. 다양한 민족들을 민주주의, 시장 경제, 영어, 기독교 등의 공통 기반으로 형성된 ‘도가니’ 안에서 녹여서 하나의 합금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수십 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족들은 여전히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으며, 인위적인 동화 과정에서 문화적 충돌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과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이 미국 문화에 거의 완전히 동화되는 데에는 2-3세대의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브리태니커 온라인 “동화(assimilation)”).

그 후 1980년대에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로 대체되는데, 이는 서구 문화에 가까우면 ‘문화’이고 멀면 ‘야만’이라는 식으로 서구 문화의 잣대로 전세계 다양한 민족들의 문화를 평가했던 데 대한 반성이었으며, 모든 문화는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다(브리태니커 온라인, “문화다원주의”(multiculturalism)). 이것이 국가 내의 민족 문제에서도 각 민족들이 국가의 공통 가치와 개별적인 문화적 다양성을 병행하여 유지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발전하였다(브리태니커 온라인, “미국화”(Americanization)). 이 현상을 설명해주는 것이 바로 ‘샐러드 그릇’(salad bowl) 모델이다. 큰 그릇 안에 복잡하게 섞이고 얽혀 있기는 하지만, 재료 각각의 특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역지로 하나의 인위적인 민족을 창조해내기보다는 각자의 인종적, 민족적 정체성은 유지하되, 국가의 기본 질서를 이루는 이념과 제도에 대해서는 합의를 통해 받아들이는 모델이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과정은 결혼 생활과 유사하다. 부부가 수십 년간 서로 다른 집안의 가치관을 유지하다가 결혼 후 함께 살다보면 의식주 습관, 자녀 양육과 교육 방식 등 많은 차이로 충돌한다. 이 충돌이 때로는 수십 년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고 끝내 이혼하는 경우는 허다하다. 서로 다른 민족들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부대끼며 융화되는 과정이 부부의 결혼 생활보다 힘겨울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문화 갈등을 살펴보면, 인종적 차별이 심하게 드러난다.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 유럽 등 서양 백인들은 선망의 대상인 듯 바라보지만, 한국인보다 피부색이 짙은 아프리카나 남아시아 출신 사람들은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그들의 법적, 인간적 권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는 인종이나 피부색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데도, 현실에서는 종종 무시되어 욕설이나 비하, 불친절과 사기의 대상이 된다. 최소한 같은 인간으로서 서로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법률 이전의 도덕적 의무이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인류의 보편적 규범이다. 이때 필요한 자세는 서로의 '차이'(difference)를 '틀림'(wrongness)이 아닌 '다양성'(variety)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자세, 즉 '관용'(tolerance)이다.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는 휘즘의 표현대로 '아주 작은 분량의 이성'(small pittance of reason)을 부여받은 동물인 인간이 진정한 통찰을 통해서 상식과 미덕이 자리잡는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인류의 소망을 드러낸다. 자신에게 익숙한 세계만을 일방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자기가 갇힌 우물의 한계를 벗어나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겸허함과 인간으로서 누구나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이성과 상식에 기초하여 세계를 움직일 때 인간 사회의 폐단과 혼란이 진정으로 치유될 수 있다(강형 1999, 204-205).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강자 또는 약자, 아니면 문명 또는 야만(즉, 대인 또는 소인)의 위치에 있는 나 자신이 다른 시대, 다른 지역에서

는 정반대에 놓일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나에게서 매우 중요한 가치도 다른 이에게는 쓸모없는 공리공론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나에게서 공리공론으로 보이는 것이 다른 이에게는 생명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 즉 상대성의 인식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오늘날과 같은 지구촌 시대에 서로 다른 가치를 존중하는 민족들이 동일한 시대와 공간을 공유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인류 보편의 가치 위에서 서로 충돌하는 문화와 가치 규범을 중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그리고 본래적으로 주어져 있는 이성과 상식이 가장 중요한 자산임에 틀림없다.

< 참고문헌 >

강형, 1999, “걸리버 여행기: 상식과 이성의 정치”, 『신영어영문학』 12호, pp. 177-209.

이수연, 2010, “빼뜨루셴스까야의 ‘새로운’ 로빈슨과 걸리버”, 『외국문학연구』 40호, pp. 205-229.

이영관·박근수·이동미, 2011, “여행소설 『걸리버 여행기』와 『80 일간의 세계일주』의 구성체계 비교분석”, 『관광학연구』, 35권 10호, pp. 147-160.

전인한, 2003, “반납과 공유: 조너선 스위프트의 광기”, 『중세르네상스영문학』, 11권 2호, pp. 447-472.

\_\_\_\_\_, 2004, “때깔 좋은 옷을 입은 전쟁: 18세기 영국에 있어 무역의 호전성”, 『밀턴과 근세영문학』, 2호, pp. 399-431.

정영호, 2003, “『걸리버 여행기』와 『경화록』에 나타난 사회비판과 이상향”, 『중국소설논총』 18호, pp. 309-335.

최정운, 1999, “새로운 부르주아의 탄생”, 『정치사상연구』 1호, pp. 9-51.

경향신문, “서구화됐다…자신의 딸을 살해한 비정한 이라크 父”(2011.01.03).

노컷뉴스, “외국인 범죄 8년새 3배 증가… 제노포비아 경계령”(2012.04.11).

뉴스스, “제노포비아…갈수록 흉포화·급증하는 외국인 범죄실태는?”(2012.05.17).

서울신문, “노출 심해…딸 셋, 첫째 부인 살해…加 ‘명예살인’에 중신형”(2012.01.31).

연합뉴스, “국내 거주 외국인 140만명 돌파… 광역시 수준”(2012.08.19).

한겨레, “난 한국의 무슬림이다”(2011.05.16).

\_\_\_\_\_, “10대 딸 ‘명예살인’ 파키스탄 부부 중신형”(2012.08.05).

헤럴드경제, “오원춘, 이자스민…불길처럼 번지는 제노포비아”

(2012.04.16).

\_\_\_\_\_, “외국인=범죄자는 편견…한국인 범죄율이 두배 많다”(2012.04.17).

브리태니커 온라인, “동화”(assimilation), 2012/09/01.

\_\_\_\_\_, “문화다원주의”(multiculturalism), 2012/09/01.

\_\_\_\_\_, “미국화”(Americanization), 2012/09/01.

Bishop, Isabella Bird 저, 이인화 역, 1994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서울: 살림.

Griffis, William Elliot, 신복룡 역, 1990, 『은자의 나라 한국』, 서울: 집문당.

Rachels, James 저, 김기순 역, 1989, 『도덕철학』, 서울: 서광사.

Swift, Jonathan 저, 신현철 역, 1993, 『걸리버 여행기』, 서울: 문학수첩.

\_\_\_\_\_, Paul Turner ed., 1994, *Gulliver's Travels*,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1999, 『걸리버 여행기』,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_\_\_\_\_, Jim Manis ed., 2008, *Gulliver's Travels*, Hazelton, PA: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Electronic Classic Series.

## A Review of *Gulliver's Travels* in Terms of Multiculturalism

Jo, Jin-ho  
(Suwon University)

### Abstract

In 2012, the first immigrant-representative enters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Korea now has more than 1,400,000 long-term foreign residents (including immigrants and naturalized citizens) and the population of them will continue to grow. While the increasing foreigners have lived with Korean natives, the symptoms of 'xenophobia' begin to occur and the problem of how to reconcile cultural conflicts among various ethnic groups gets bigger.

Hence Jonathan Swift's novel, *Gulliver's Travels*, can provide some lessons. This work contains the suggestions of an ideal society the writer pursues. Gulliver shows his own character development through diverse experiences in unknown worlds.

In the 18th century, Daniel Defoe produced another adventure novel, *Robinson Crusoe* while Swift did *Gulliver's Travels*. Both are the works of exciting challenges to a new world, but they are contrary to each other because Swift was opposed to imperialism. Daniel Defoe from Britain, the ruler, and Jonathan Swift from Ireland, the ruled, respectively create Robinson Crusoe who builds his own kingdom and Gulliver

who learns everything and grows his own character through the interactions with strange tribes.

The basic rights of a human being should always be equal among different races, nations, and skin color. Respecting human rights is a moral obligation prior to laws and a universal norm of human society which anyone should observe. Then,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and accept 'difference' as 'variety', not as 'wrongness'. This is called 'tolerance'.

*Gulliver's Travels* shows the wish for a human being 'with only a small amount of reason' to build a world where common sense rules. Social evils can be treated when people operate the world with reason and common sense which a human being primarily has.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relativity, that is, the possibility in which I could be put in another's place and in which my precious values could be meaningless for other people. At the same time, it is also necessary for various ethnic groups to attempt to mediate conflicting cultures and norms on the basis of universal value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Thus, it should be perceived that human reason and common sense are the most important assets that a human being is given primarily and genuinely.

**Keywords :** Jonathan Swift, *Gulliver's Travels*, multiculturalism, relativity, universality, human rights, reason, common sense.